

# 세계 최초 드론축구 공식대회 개최

### 전주시장배 전국대회, 28일 경기 고양 일산킨텍스서... 드론·3D 공동관도 운영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해온 전주시가 첫 번째 드론축구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가 세계적인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드론축구 보급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 대회'를 개최한다.

전주시가 개발한 드론축구는 탄소소재와 드론기술 등 최첨단기술이 집약

된 축구공 모양의 드론 5대가 한 팀을 이뤄 상대팀 골대에 들어갈 때마다 득점을 하는 방식의 신개념 스포츠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26일 전국 드론축구 선수단이 공동 출범식을 가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전 세계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신개념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보유니버시티&드론' 행사장 내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드론축구 동호회와 국내 지자체 선수단 등 전국 15개 팀 정도 참가할 예정이며, 우승팀에게는 총 5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

될 예정이며, 준우승과 3위 팀에게도 트로피와 함께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한다.

대회 틀은 플레이어이자 축구공인 드론이 고리 모양의 골대를 지나면 1점을 획득하고, 드론 하나가 연속 득점을 못하도록 득점 후 10초 동안은 추가 점수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로보유니버시티&드론 행사장에서 전국 드론축구대회 뿐만 아니라, 김승수 전주시장의 드론축구 심정도 참가할 예정이며, 우승팀에게는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개발된 드론축구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널리 보급하고, 드론축구 경기방식 등도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 박진감 넘치게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우승트로피와 상금을 놓고 격돌하는 첫 드론축구 공식대회를 통해 드론축구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회째 열리는 '로보유니버시티&드론' 행사는 미국의 글로벌 빌드업인 RisingMedia와 한국 킨텍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B2B 전문행사로서, 최첨단 로봇기술과 드론, 인공지능, 가상현실, 무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인재용 기자



진안지역 일부 기관들이 현충일을 맞아 조기를 계양하지 않았다고 6일 전해졌다. 사진은 진안 통계청 전경.

### 진안지역 일부 기관들 현충일 조기 미계양

##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 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인 현충일에 일부 행정기관, 우체국, 학교, 농협 등에서 조기를 계양하지 않아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주민들에 따르면 진안군 진안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진안분소, 국민건강보험 진안지사, 진안군 법원, 진안군 의료원,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등이 관내에 하나씩 뿐인 기관들도 조기를 계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진안군 11개 읍면 중 마령면사무소, 정천면사무소, 주천면사무소, 용담면사무소, 동향면사무소, 상전면사무소 등 6개면에서 조기를 계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내 11개 우체국 중 백운우체국, 용담우체국, 상전우체국 등 3개 우체국이 조기를 계양하지 않았으며, 학교는 마령고등학교, 주천초등학교, 동향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조기를 계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 농협진안군지부 외 5개농협 7개지점 가운데 전북인삼농협, 성수농협, 진안농협 마령지점, 부귀농협 정천지점, 진안농협 주천지점, 진안농협 안전지점, 진안농협 동향지점 등 대부분이 조기를 계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안경찰서와 읍면 파출소는 100% 조기를 계양하고 있어 타 기관과 비교가 되고 있으며, 진안군청을 중심으로 무진장축협, 농협진안군지부, 진안경찰서, 진안법원, 진안전화국 등 6개 기관 중 진안법원과 농협진안구지부가 조기를 계양하지 않아 비교가 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간남로 통행불편 해소 나서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법 주·정차로 골살을 앓는 간남로(르윈호텔~원산파크 아파트) 구간 통행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는 기린대로 르윈호텔 맞은편에서 견훤로 원산파크아파트까지 이어지는 간남로 448m 구간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이달 중 총 1000만원을 투입해 도로 중앙에 교통시설물(차선 유도봉) 1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은 한옥마을을 찾는 차량들이 평일에는 1개 차로, 주말에는 2개 차로에 주정차를 하면서 교통이 불편하고 사고 우려가 높았던 곳이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말과 휴일 가리지 않는 반복적인 교통 혼잡으로 인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도로 한 가운데 차선유도봉을 설치해 불법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무주읍 미래드림 3차 아파트 공사 현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소음·비산먼지에 지역주민들은 "골머리"

### 무주읍 미래드림 3차 아파트 건설현장서 발생

### "폐기물들 인도 점령해 보행안전 위협해" 불만 토로

무주읍에서 미래드림 3차 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지건설 철거과정에서 공사장과 주변 안전시설이 부실하고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미래드림(주)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예정인 3차 아파트 부지현장으로 6월 중순경 1~2층 상가, 3층에서 15층까지는 아파트로 4등 95세대가 건축

허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드림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비산먼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아무 이상 없어 관측하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해도 어느정도의 주변환경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는데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라는 반응이다.

또한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수돗물을 비산먼지 제거용으로 사용해서야 되겠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도로에는 건물 철거 공사장을 드나드는 운반차량에서 흘러 흩날리는 도로 곳곳에 떨어져 차

량의 운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갈 때 마다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건강위험은 물론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통행하는 인도에는 공사장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어 제구실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설치한 것이 눈에 보인다"면서 "각종 폐기물은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점검

전주시 완산구는 폐수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23일까지 관내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1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변경신고 적정여부, 폐수 보관 상태, 폐수 적법 위탁처리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불법 리베이트 수수' 전주 J병원 전 이사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의약품선정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J병원 전 이사장 박모(6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3억5200만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약품 선정 및 거래유치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회사 등 19곳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3억6300만원의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2010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7명의 근로자를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16억 7000여만원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사

### 군산 A 복지시설 인권위 조사

군산 한 복지시설이 장애인 폭행 등 학대가 의심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인권위는 7일 군산시 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설 종사자 최모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발달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